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3월 17(주일)
제직회

3월 26(화) - 29일(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9일(금)
고난일 저녁예배
성찬식

3월 31일(주일)
부활주일, 입교/세례식

4월 6일(토)
제4기 교사대학 개강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김진영 2부/최영두 3부/이성민 4부/나하영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임재 다 함 께
- 봉헌 및 대표기도 1부/ 김승기 장로 2부/ 조나영 권사 3부/ 이성열 장로 다 함 께
- 성 경 슥 3:14-17 사 회 자
- 찬 양 2부: 갈보리 산 위에 시온찬양대
3부: 참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예수 백전백패 안현수 목사
- 찬 양 십자가를 참으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대표기도 김 수 경
 - 찬 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막 2:1-12 [치유자 예수 1] 김진영 목사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 축 도 설 교 자
- 다음주 기도: 1부/ 김인배 장로 2부/ 손보영 장로 3부/ 조병림 권사 4부/ 이준희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골 3:5-17
 제목: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2
 기도: 김태성 집사 (다음 주 기도: 박진석 집사)
 설교: 이요한 목사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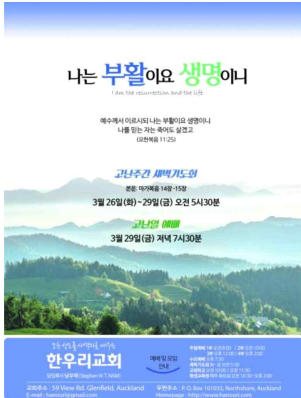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17일) 오후 1시 30분에 정기
제직회가 있습니다.
4. 새가족 테이블이 친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31(주일)에 있습니다.

- 교육일정: 3월 23일, 30일(토) 1시~3시
- 문답: 3월 30일(토) 3시 사랑부실
- 입교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을
미리 하고, 세례 신청자는 만14세 이상으로
성경일독 또는 한우리교회 유튜브채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18강을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youtube.com/HanouriTV>)
-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비전 주니어 학부모 간담회: 3월 17일
- 기쁨의 나라 찬양대회: 3월 17일(주일)
- 제4기 교사대학 개강: 4월 6일(토)
- 교육위원회: 4월 14일(주일)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타카푸나비치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불신영혼 구원을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우천시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3	10	히엘필리핀 / 베트남
	17	이리안자야쁘대나 / 양의문
	24	키르키즈스탄 / 일본

교우동정

- 소천
고 차은호 성도(이경미 김순민)가 지난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성배(방은정) 집사가 지난 8일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C D/C G/B C D Em7 C D/C G/B
 십자가를 참으 - 신 - 어린양에 - 수 - 내죄씻어주시 - 고 -

7 Am7 Dsus4 D7 C D/C G/B C D Em7
 구속 - 하셨 - 네 - 어둠을 물리치 - 신 - 세상의 빛에 - 수 -

13 C D/C G/B A7 Dsus4 C D
 영광의 빛 비추 - 사 - 자유케 하시 네 예

18 G B7 Em9 E7 Am7 A Dsus4 D C
 수 하나님 - 의 완전한 사랑 - 예 수 하나님 - 의 값없는 - 은혜 - 예

22 Bm7 E7 Am7 Dsus4 D G
 수 하나님 - 의 놀라운 지혜 - 아름다 - 운 그 이름 - 예 수 *Fine*

26 Am7 G/B C G/B Am7 G/B Dsus4 D7
 주 같 - 은분 없 - 네 - 주께 영광 돌리 - 세 -

30 Am7 G/B 1, 2. Dsus4 D7 3. Dsus4 D7 D.S. al Coda
 주께 영광 돌리 - 세 - 세 - 예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느헤미야	이경석	21868075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랑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2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윗	15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7 북한개성	주운태	2102847491	
빛	20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나	이광일	212179303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부르키나파소	권경호	21556934	62 LA	정두련	211365151	
	25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우리	26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4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5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6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29 고태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7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8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69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참빛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0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33 필리핀 안티폴로	최종민	272287226	71 웰링턴	이종훈	21781999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72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5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73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7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38 통가	송경순	2102562581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예수 백전백패
(눅 3:14-17)

'플꽃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1.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2. 하나님은 우리(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눅 3:17; 출 20:2)

3.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이 사실을 알고 새롭게 다짐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눅3:17; 마16:18,19)

4.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는 듯 합니다. 언제 나에게 저주시는지
생각하고 함께 나눠 봅시다 (눅 3:17; 창 32:24-30)

미국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마약 허용 길든 美 오리건주, 심각한 범죄로 다시 처벌 강화

3년 4개월 전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코카인 등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한 오리건주가 정책 폐기에 들어가, 지난 1일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 형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3일 AP통신을 인용, 조선일보가 전했다. 오리건주는 2020년 11월 주민 투표에서 58%의 찬성표로 마약을 사실상 비(非)범죄화했다.

하지만 주 전역이 ‘마약 소굴’로 변해버렸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치료 중심의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처벌로 방향을 틀었다. 오리건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는 마약 비범죄화 이후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2019년 4,000명쯤 됐던 노숙자 수는 지난해 말 7,500명에 육박했으며 총격 사건도 2022년 997건으로 3년 전의 3.2배로 늘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뉴질랜드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뉴질랜드인 코카인 사용 두 배 늘어,
지난해 50만 명이 대마초 사용

최근 뉴질랜드인의 코카인 사용이 두 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코카인은 중독성이 강한 강력 마약류다. 마약피해방지재단(Drug Foundation)은 하수 마약 성분 검출 결과와 전국의 마약 동향 조사를 토대로 최근 뉴질랜드인들의 불법 마약 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2022/2023년 56,000명(1.3%)이 코카인을 사용했다. 이는 이전 3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최근 뉴질랜드 경찰과 세관의 단속이 기록적으로 많아졌지만, 코카인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다.

코카인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뉴질랜드 전체 마약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해외에서 많은 양이 유입되었음을 뜻한다. 대마초는 여전히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약류였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50만 명 이상이 대마초를 사용했다. 64-75세 연령층의 대마초 사용은 6.4%로 10년 전보다 10배나 늘었다. 15세 이상 뉴질랜드인 152,000명이 MDMA(엑스터시 환각제)를 사용했다고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이다(출처: 원치치).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미국] 미국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중독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 [뉴질랜드] 세대를 넘어 다양한 마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뉴질랜드를 보살피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벗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